

큰스님 수행한담

주체적 인생 가꾸세요



87년 불광사 주지스님으로부터 양국불교교류에 기여했다는 뜻의 감사패를 받는 혜용스님(왼쪽).

올렸습니. 그랬더니 은사스님께서 갑자기 들고 계신 주전자로 나를 후려치셨습니다. 까닭도 모르고 얻어맞았지만 스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한참 후에 그 연유를 물으려 하니 스님께서 "의법불의인(依法不依人)해야 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법에 의지해야지 사람에게 의지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름아, 너는 허상

음악에서의 3년 수행은 그렇게 시작됐어요. 하루 두 끼, 볶은 쌀을 먹고 냇가로 가서 물을 먹는 일 외에는 온종일 참선수행에 열중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보낼 즈음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체력도 소진돼 말할 기운조차도 없었을 정도니 행동하는 것만 사람이지만 몸은 그야말로 짐승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궁극의 깨달음도 내게는 멀게만 느껴진 것

“스님이 열심히 수행하면 신도들도 배워 열심히 살고 결국 세상이 불국토 됩니다”

그때도 은사스님께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3년을 마치고 내려오던 날 은사스님께서는 신도들을 모아놓고 제자가 3년 천 일기도 회향을 한다고 법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내게 직접 불공을 올리도록 하셨습니다. 나는 그 불공이 끝난 직후 곧바로 쓰러져 3일간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3일 후 스님께서는 간신히 정신을 차린 내게 "아무 것도 보지 못했고, 아무 것도 깨달은 것이 없다고 말할 것 몰라도, 너는 분명 부처님을 보았고 깨달음을 얻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3년간 수행을 마치고 내려오면서도 나는 아무런 확신도 없었습니다. 고생을 했으면서도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는 자괴감마저 들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회향식 불공때 정신질환을 앓던 한 보살이 법회가 끝나기 전에 쓰러

신 태어스님께서도 법화사상을 중심으로 삼으셨는데, 법화사상의 핵심은 바로 '개시오입(開示悟入)'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열고 부처님의 지혜를 보여 주고 부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고

그때서 부처님의 깨달음에 들어가게 한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핵심이 있는데 그것은 '십여시(十如是)'입니다. 이것은 여시상(相) 여시성(性) 여시체(體) 여시력(力) 여시작(作) 여시인(因) 여시연(緣) 여시과(果) 여시보(報) 여시본말(本末)의 열가지 인연법을 담은 것인데, 중생의 모든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십여시'와 '개시오입'의 이치를 깨닫고 나면 사는데 아무 걸림이 없게 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관음중에 발을 들여놓고, 법화사상을 쫓는 이유도 바로 이같은 이치에 큰 매력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한 가지 큰 발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비구로 태어나게 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다한 수행을 끝까지 해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번뇌라면 번뇌죠. 산문에 들어선지 그토록 오랜시간이 지났으면서도 아직도 번뇌를 죽이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주위에서 아무리 큰스님이라고 불러도 내 자신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니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정도면 되지 않았느냐고 주위에서 말하곤 하지만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되는 것이 스님의 본분인데 어디 끝이 있었습니까.

정리=현명우 기자 (mwahn@buddhania.com)

나의 수행일기



(SBS기획편집본부장)

할머니 나와 형제들 생일 때나 바랍 올리는 날(?)이면 정화수 때 놓고 지성으로 비는 모습을 보며 유년시절을 보냈다. 부처님께 보살님께 심지어 용왕님께 "우짜든 우리 새끼를 명길고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지금도 같이 떠올려 진다. 대개 우리나라는 토속신앙과 불교적 배경을 지니고 자란 사람들이 많다. 나처럼 말이다. 6.25 전쟁 와중 그 어렵던 중학시절, 나는 삼촌을 따라 예매당에 갔다. 꾸벅꾸벅 졸다가 구호품, 그것도 서양 사람이 입던 옷가지 한 두개를 타 온 적이 있지만 흥미가 없어 더 이상 교회에 가질 않았다. 아마 내 안에는 불성이 자라고 있었던 모양이다. 고등학교 3학년때는 고시 공부한다

실과의 아합과 안일로 또는 일상을 제법 열심히 엮어 나간다는 이런 저런 이유로 종교를 생각지도 못하고 살아왔다. 그 사이에도 절을 방문한 적은 있지만 경관이나 풍화 구경하는 관광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나는 지난 90년, 대구 KBS 총국장 시절 처음으로 정초 휴가를 받았다. 그 때 주위사람의 주선으로 해인사 금강굴에서 이틀밤을 보내게 되었다. 새벽 밤하늘의 별, 싸늘한 공기, 산야를 뒤덮은 흰눈, 범종소리와 목탁소리에 묻은 염불소리, 비파소리에 취해 세상이 일던 옷가지 한 두개를 타 온 적이 있지만 흥미가 없어 더 이상 교회에 가질 않았다. 아마 내 안에는 불성이 자라고 있었던 모양이다. 어느덧 오십고개, 살아온 날 보다

20년전 해인사 금강굴에서의 이틀밤 '인생이 뭐가' 진지하게 생각한 계기

고 여름방학에 뜻도 모르는 법학 서적을 둘러 먹고 공민선생 권유에 못 이겨 절로 갔다. 경남 고성 문수암이라고, 다도해의 절경이 내려다 보이는 산 중턱의 작은 암자였다. 거기서 행자 보초 비슷한 노릇도 했다. 물 떠오고 청소하면서 동국대학 출신의 말 수가 적은 행자와 얘기를 나누면서 내가 앞으로 꼭 하고 싶은 사화에 이루어 놓고 싶은 가치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었다. 고시공부, 사회 정의를 실현한다는 큰 뜻도 있지만 그 당시 사회 통념으로는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출세해 가문을 빛내는 그런 뜻이 더 강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하게 되자 고시공부는 때려치우고 (반야심경)을 외웠다. 경전을 외우면서 의식이 나면 스님께 달려가 여쭙보았는데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되었다. 당시 수학 공식 풀듯 손에 잡히는 해답이 아니면 흥미가 없던 시절이었다. 지금은 여름 한철 최고의 절경에 위치한 고즈넉한 산사에서 보냈다는 기억밖에 없다. 하지만 불교와의 인연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깊어져 갔다. 그 후 사느기 바쁘다는 핑계였다 현

살아갈 날이 아무래도 덜 남았다는 생각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열심히 살고 일상도 중요하지만 뭐가 그래도 더 가치있는 일에 시간과 인생을 투자하고 싶었다. 뒤늦게 인생이 뭐가 하는 의문이 몰려 올 때도 있었다. 그 나이쯤 되면 누구나 한 두번씩은 갖는 의문일 테지만 고교 3학년 때 문수암에서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뒤늦게나마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요즘은 건축중인 일산 여사들의 지하 2층에 임시로 모신 법당을 찾아 부처님께 거의 매일 아침 삼배를 드린다. 이런 기도를 한다. "관세음보살, 좋은 생각으로 좋은 일에 전념하셨습니까. 대자대비의 대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해 주십시오. 관세음보살, 그렇더라도 제 힘이 약하니 저에게 지혜와 그 지혜를 실천할 힘, 용기를 주십시오." 새벽예불이 끝나면 정발산을 오르며 예불문과 반야심경을 제법 큰 소리로 읊조린다. 나는 수행생활로 불교와 자연 그리고 인생에 대한 시를 더 쓰고 싶다.



세상은 정진하는 도량이나 마찬가지로

최선 다하면 후회없는 결과 나오는 법

을 보고 다녔을 뿐이야. 왜 진리를 보지 못하느냐!" 하시며 호된 꾸지람을 내리셨습니다. 스님의 이 한마디에 불교에 입문한 후 처음으로 깨우침을 얻었습니다. 나는 곧바로 침묵정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정진을 마치고 나서 강원에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스님께서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줄테니 열심히 공부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6년간 스님 밑에서 대교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족하지는 못했습니다. 교리는 머리 속에 다 들어있는데 진짜 내가 찾던 '길'을 열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스님께서 이것을 아셨는지 잘 근처에 있는 폭포 옆에 음악을 하나씩 이어주시더니 이곳에서 3년간 수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은사스님께서는 나를 '종다운 중'으로 만들려고 작정하신 게지요.

도 더 이상 수행해 보아야 소용없겠다는 생각을 부채질했습니다. 음악에서 내려와 은사스님께 더는 못하겠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스님께서는 한참을 골똘히 쳐다보시더니 호된 꾸지람 대신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이 그렇게 가까이 있다면 누가 몇십년을 장좌불와 해가며 수행을 하겠느냐. 이제 시작에 불과하니라. 하지만 너는 두려움이 시작을 했으니 반쯤 온 것이 아니겠느냐. 좀 더 참고 정진해 보아라. 그러면 분명히 부처님 말씀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라고요.

저 병원에 실려 간 후 얼마간 치료 후 다 나았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는 마침내 내가 수행한 것이 헛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나는 부처님 법을 열심히 따르면 소원성취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도 후학들에게 은사스님의 가르침이신 '의법불의인'을 그대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스님께서 내게 보여주셨던 대로 나도 후학들에게 모범을 보이려고 지금도 불공과 도량생활 하기도 거르는 일이 없습니다. 경전을 읽는 것도 빠뜨리지 않지요. 경전은 읽는 하지만 그 뜻은 모두 한가지입니다. 모든 종교가 선(善)을 지향하고 있듯이 부처님 말씀도 궁극적으로는 깨달음을 향한다는 차원에서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나는 법화사상을 불자들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스승이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개)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품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양철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든든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든든해야 몸이 쫄아집니다.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래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개)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밤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퍼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가 격: 정가 칠십만원(7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여러분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입금규칙: 대구은행 161-07-412768-001 (대구여래한방)

여성중앙 99년 6월호 지금 일본에서 최고 인기! '크로스 건강법'을 아시나요? 참가서 노화억제·암예방 심문 대량추출 능진청 세계 최초로 다 세시미는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소가 인체내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식품입니다.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문의전화: (053) 655-2227 (011) 808-8880

본사 생산제품 속진식(2개월 50만원), 속효소정액(2개월 50만원) 익수영진고(2개월 100만원), 치신영기환(3개월 50만원)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승(山僧)은 비구니로 6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여든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를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붓는 증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천일지장기도가 끝나는 날 꿈속에서 비은 스님의 얼굴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번만 침을 맞은 후 자연건강식품 「불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므로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말씀을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 혜명 합장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육고(경육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이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 박 법문 합장

참가서 노화억제·암예방 심문 대량추출 능진청 세계 최초로 다 세시미는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소가 인체내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식품입니다.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문의전화: (053) 655-2227 (011) 808-8880